

# 케이팝 콘서트·수영댄스...문화축제 속으로

알고 보면 더 재미 있는 세계수영대회

## ⑦ 문화행사 볼거리 가득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중에는 각각 선수들의 경기 장면 이외에도 전야제와 개·폐회식을 비롯해 선수촌과 남부대 주 경기장, 5·18 민주광장 등에서 펼쳐지는 각종 문화행사들로 볼거리가 가득할 전망이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대회 개막일 하루 전인 7월 11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대회 폐막일인 28일까지 5·18 민주광장과 남부대 주 경기장, 선수촌, 영주체육관 주 무대에서 '물, 빛, 그리고 흥(興)'을 주제로 공연과 전시, 댄스경연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매일 선보인다. 대회 전날인 11일 오후 9시에 열리는 전야제는 '케이팝(K-POP) 콘서트'가 열려 시민화합 한마당 행사로 진행된다.

이어 12일(개막일)부터 28일(폐막일)까지 대회 기간 중에는 사물놀이, 뮤지컬, 남도민요, 통기타 공연, 무용극, 퓨전 국악, 수화 공연, 댄스경연, K-POP 댄스 배우기 등의 풍성한 공연과 문화행사 등이 준비돼 있다.

남부대 주 무대에서는 물을 주제로 한 세계수영댄스 경연대회가 펼쳐지며, 댄스스포츠와 거리퍼레이드, 150명이 펼치는

선수촌, 남부대, 5·18광장서 재즈·난타·사물놀이 등 풍성 시민 참여형 프린지페스티벌도

태권도 시범, 지사군 페스티벌, 라틴댄스 공연 등이 다양하게 펼쳐지는 축제의 장이 마련된다.

또한, 러시아·중국·일본·동아시아 등 세계 각지의 전통공연과 우리나라 지자체 특별공연, 아이들을 위한 인형극 축제 등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선수촌에서는 재즈와 남도민요, 통기타 공연 등이 펼쳐지고, 버스킹과 희망나눔 콘서트, 퓨전국악 공연 등이 열린다.

영주체육관 주 무대에는 러시아 브라스 밴드 공연과 난타 퍼포먼스, 사물놀이, 오카리나 공연 등이 준비돼 있다.

이밖에 국립아시아문화원이 주관하는 월드뮤직페스티벌, 로보틱스 퍼포먼스 공연, 아시아 컬처마켓 등도 마련됐다.

따라서 대회 기간 중 경기장 곳곳에서 전국에서 모인 96개 팀의 시민 공연예술가들과 해외 공연팀의 풍성한 공연을 볼 수 있게 된다.

5·18 민주광장에서는 대회 기간 중 장르와 형식을 초월한 거리 축제와 프린지



수영대회 안전 개최 테러 대책협의회 20일 광주시청 내 총무시설에서 정중제 광주시행정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세계수영대회 안전개최를 위한 광주·전남 지역테러 대책협의회가 열렸다.

페스티벌도 함께 선보인다. 13일에는 '물 축제'로 지자체 축제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장흥군이 '젊음이 물신, 장흥에 흠뻑쇼'라는 주제로 자치단체 공연이 준비돼 있다.

14일에는 사직 사운드페스티벌이, 19~21일까지는 세계정년축제가, 26일~28일까지 프린지 아시아 마임캠프가 개최된다.

프린지페스티벌에서는 5·18민주광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음악, 마임, 버스킹, 서커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시민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조직위는 개막식에 앞서 수영대회 개막 D-20일을 맞는 22일 오후 8시 5·18 민주

광장에서 모스크바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광주 공연을 개최한다.

러시아에서 지휘자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노태철 교수(아쿠티아 음악원 부총장)가 지휘를 맡아 한국인에게 익숙한 차이콥스키를 시작으로 베르디 등의 명곡을 선보인다.

이용섭 조직위원장은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발적 참여를 통한 풍성한 문화행사를 준비했다"며 "평화의 물결이 넘실대는 대회로 만들고 시민참여를 끌어내 수영대회를 꼭 성공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붉은물 사태 인천에 빚어올수 8만5000명 지원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붉은 수돗물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에 광주시 수돗물 '빛어울수' 8만5000병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9일 빛어울수 일일 생산가능한 양을 최대 늘려 1.8 l 3840병과 350ml 1만9200병을 우선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27일까지 1.8 l 8000여병과 350ml 7만7000병 등 총 8만5000여병을

인천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광주 '빛어울수' 병입수돗물은 2007년부터 생산하고 있다. 지난 4월 광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에 따라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현재는 비닐수용유로만 제공하고 있다.

황봉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아름다운 물을 마시는 인천 시민에게 광주 수돗물 빛어울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수돗물 누수 신고로 포상금 타세요

광주시 최초 신고자 2만원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는 상수도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누수사고를 시민들의 신고와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적잖은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887건의 수돗물 누수 사고 중 절반이 넘는 461건(51.9%)이 시민들이 발견해 신고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누수 의심 현상을 보고, 최초 신고한 시민에게는 2만원의 포상금도 준다.

도로에 맑은 물이 흐르거나 ▲고여 있거나 ▲하수도관에서 평소보다 크게 물 소리가 들리는 경우는 누수가 의심된다.

시민 누구나 관계기관에 신고하면 관련 공무원들이 현장출동 후 누수여부를 확인하고, 복구한다. 누수 의심 신고는 시청물센터(062-120),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062-209-6200)로 하면 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광주시, 국회서 인공지능 산업 토론회 열어

광주 인공지능(AI)산업단지 기업간 상생발전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겸 사회추진단장은 발제에서 "광주는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에타 면제된 인공지능 클러스터 사업을 계기로 인공지능 인프라를 한 곳에 집적해 인공지능산업 융합을 촉진하는 거점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손경중 광주시 전략산업국장은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육성계획" 발제에서 "광주시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는 광주의 3

대 주력산업인 에너지, 자동차, 헬스케어를 연계하는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손 국장은 이어 "집적단지 인프라 조성, 인공지능 창업 지원, 인공지능 연계 산업융합형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며 "낙후된 지역산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면 광주는 기술과 기업, 일자리가 활성화된 미래 성장동력 산업 거점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광주시가 주관하고 장병완·김경진 국회의원,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광주시 '건축자산 가치발굴 공모사업' 선정

광주시는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부설 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가 공모한 '2019 건축자산 가치발굴 및 확산을 위한 지자체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광주시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주관으로 연말까

지 건축자산 기초조사와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

조사대상은 준공 후 30년 이상된 건축물(공공건축물은 20년) 가운데 역사·경관·예술·사회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친환경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 한 눈에 본다

국제그린카 전시회·로봇박람회 31개국 284업체 참여

'제12회 국제그린카전시회'와 '2019사물인터넷·가전·로봇박람회'가 2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광주 미래먹거리 산업인 친환경자동차와 사물인터넷(IoT) 기반 로봇 기술, 스마트 가전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리로 22일까지 진행된다.

국제그린카전시회에는 151개사가 참여해 252개 부스를 운영한다.

토요타와 نيسان, 비엔더블유(BMW), 마스타자동차 등 국내외 완성차업체가 만든 친환경차와 관련 부품, 자율주행시스템 등 친환경차 관련 미래 기술이 선보인다.

광주시는 그린카전시회에 광주형 일자리로 준비하는 미래 50년의 광주 자동차 산업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홍보관을 마련했다.

광주국제사물인터넷(IoT)·가전·로봇 박람회는 사물인터넷 홈가전을 비롯해 스마트 가전제품과 로봇산업 관련 기업인 삼성전자, 광주공동브랜드 등 지역 가전



20일 오후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그린카 및 IOT가전로봇 박람회'에서 참석자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기업 등 국내외 133개 업체가 참가했다.

국제첨단자동차기술컨퍼런스, 빛고을로봇페스티벌, 빛고을드론경진대회, 제작드론 시뮬레이션 조종 체험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우수 제품의 해외시장 수출판로 개척을 위한 글로벌 해외 전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도 진행된다.

이날 개막식에는 정중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천정배

국회의원, 김준성 영광군수, 최순종 열지(LG)유폴러스 상무, 장은석 마스타전기차 최고경영자(CEO) 등 4000여명이 참석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증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